

지역 소식통

완주, 수소 전문가 자문단 회의

완주군이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수소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16일 완주군청 전략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자문단 회의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대학, 수소기업, 연구기관 및 공기업 등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완주군이 추진 중인 현안사업 공유와 추진 중인 사업 점검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완주군이 새로운 시책으로 제안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추진 논의를 위해 김제경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금융전문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비상 방역체계 가동

완주군이 하절기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해 비상방역체계를 오는 9월 까지 운영한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 등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킨다.

종류로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타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비브리오패혈증, 노로바이러스 등이 있다. 하절기(5~9월)가 다른 날에 비해 집단발생률이 높다.

군은 야외활동 증가와 기온 상승으로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져 집단발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질병관리청, 청, 도, 시, 군과 하절기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평일에는 오전 9시~오후 8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후 4시까지 근무해 집단 발생 시 현장 출동해 대응한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 후 설사, 구토 등 위장관 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원주=염재복 기자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 개최

김제시, 전시부터 정책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여... 24일 백구면 특장차 단지 내

국내의 특장 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박람회가 김제시(시장 정성주)에서 열린다.

시는 오는 24일 백구면 특장차 단지에서 국내외 특장 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제2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유일의 특장차 집적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김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특장 산업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인 특장차 산업을 테마로 '생생한 현장, 친환경 박람회'를 주제로 아시 차계 준비한 전시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시와 함께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

북본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사)한국특장차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민간협력형 박람회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고소작업차, 청소차, 소방차, 레저차 등 40여종의 완성차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등을 전시하고 특장차 정책 세미나, 수출·판매 상담, 기업설명회, 수출 협약식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특성과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특장차 부품설계 및 정비 대회와 함께 어린이 특장차 그림그리기 대회, 친환경 에너지 전기 발생 체험행사, 신나는 예술 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특장차 제2전문단지 내를 비롯한 종합지원센터, 검

사지원센터 등 새롭게 조성될 특장 관련 기반 구축 사업과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 융합, 상용·특장차 사고율 제로 플랫폼 기술개발 등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특장차 혁신를 러스터 주요 사업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장차 박람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https://www.gimje.go.kr) 또는 한국특장차협회 홈페이지(https://k-sc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박람회가 특장차 생산 현장에서 특장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만큼 특장 산업 관계자와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3D 프린팅 기술인력 양성 본격

김제시, RIS 지역혁신사업 3D 프린팅 분야 공모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024년 지역혁신사업(RIS) 정책 자율과제 공모'에 선정돼 '3D 프린팅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와 JB지산협력단(주)이 주관한 이번 공모는 지자체와 대학 간 상호협력력을 기반으로 지역발전 및 현안 해결을 도모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는 이번 공모선정을 통해 도비 1억2,000만원을 확보하고, 전주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농기계, 자동차 부품, 특장차 등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을 가진 김제시의 주력 제조산업과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3D 프린팅 기술 전문인

력양성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과 관내 기업 모형을 통한 기업 맞춤형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 재직자 교육 지원, 협업기업(㈜진우에스엠씨, (주)에스팜)과의 팀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연구 개발 지원 등으로 관·산·학 협업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전문 기술력을 보급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려시 주력 제조산업과 연계한 3D 프린팅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인재를 발굴·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제개발NGO 지파운데이션, 완주 선덕보육원 지원

선물상자 지원 캠페인

'5월의 키다리' 진행

국제개발협력NGO인 지파운데이션(대표 박충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완주군에 위치한 선덕보육원 후원에 나섰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파운데이션은 선덕보육원 아동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자 선물상자 지원 캠페인 '5월의 키다리'를 보육원 강당에서 진행했다.

캠페인은 퀴즈대결, 레크리에이션, 선물상자 전달 순으로 진행돼 아이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사했다.

지파운데이션 관계자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국제개발협력NGO인 지파운데이션이 가정의 달을 맞아 완주군에 위치한 선덕보육원에서 선물상자 지원 캠페인 '5월의 키다리'를 진행했다.

이라고 말했다. 성제환 선덕보육원 원장은 "아동들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기쁘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모습을 보니 무척 기쁘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희망2024 나눔캠페인 우수시 감사패 수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6일 희망2024 나눔캠페인 우수시로 선정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감사패와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희망2024 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지역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웃사랑 성금 모

금에 적극 참여해 나눔문화 확산과 행복 공동체를 열어가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지자체에게 전달하는 상이다. 특히,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진선 사무처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김제

시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이 지역 내 소외계층에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 감사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받은 것이기에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김제시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치료제 없는 과수화상병 감염 차단 총력

완주군이 과수화상병 유입 및 차단 방제를 위한 정밀 예찰을 실시한다. 16일 완주군은 전북도가 과수화상병의 위기대응 '관심' 단계로 발령함에 따라 관내 사과 11ha(45농가), 배 62ha(92농가)를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과수화상병 주발생시기인 5~7월 기간 동안 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선제적인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예찰요원을 신속하게 투입해 과수화상병의 발생과 전파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주요 감염요인은 비·바람과 같은 자연요인과 농작업자에 의한 인위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사전예방 약제 살포와 재배농가의 작업도구 소독 및 과원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완주군에서 공급하는 의무 방제 약제로는 △1차 방제 약제 에스지 세균박사 △2차약제 세리셀 △3차약제는 아그리파지로 관내 농가는 개화 전부터 만개기까지 약제살포를 완료했다.

농가는 반드시 개화기 전후 3차에 걸쳐 적기에 방제해야 하고, 방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방제 후 약제방제확인서 기록 및 농약병 1년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되는 피해를 받게 된다.

과수화상병 발생시에는 이전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과수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과수원의 감염 나무 비율이 전체 나무의 5~10% 미만(기준 5% 미만)이라면 '전체 폐원' '부분 폐원' '감염주 제거' 중에서 식물방제관이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 행사 성황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6일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제29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클린 바다캠페인과 해양정화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찬준 부시장의 바다의 날 기념사를 시작으로, 행사에 참여한 새만금 인근 주민 및 어촌계, 한곡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김제수산업협동조합 직원들과 함께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는 클린바다캠페인과 바닷가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최근 무책임하고 무차별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로 해양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화 활동을 통해 우리바다의 중요성과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느끼며 알릴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이 부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제29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들과 함께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